



2만불 시대
중소기업이 일어납니다



중소기업청
브리핑

제21호 2004년 5월 28일 (금) 공보담당관실 TEL.042-481-4329~32 / FAX.042-472-3264

중소기업 환위험 관리시스템 개통식 개최



황영기 우리은행장(왼쪽부터), 유창무 중기청장, 김홍경 중진공 이사장, 이팔성 우리증권 사장이 중소기업 환위험관리 시스템 개통 버튼을 누르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27일 오전 11시에 우리은행 본점에서 김홍경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황영기 우리은행장, 이팔성 우리증권사장 및 (주)유니원커뮤니케이션즈 대표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환위험관리시스템 개통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통식에서는 중소기업의 대표들이 환위험 관리시스템을 통해 외환 거래를 직접 시연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이 사업에서 우리은행과 우리증권이 외환관리시스템(HTS)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참여업체 심사평가,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중소기업 환위험관리시스템은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외환시장의 실시간 환율로 외환거래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으

로 중소기업들은 무료로 제공되는 리스크 관리 솔루션을 통해 환위험을 분석, 관리할 수 있게 된다.

▶ 기업성장지원국
금융지원과
(042-481-4377)

중기청, 철도청과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협약체결

- 개발제품 5년간 수익계약에 의한 구매보장 -



유창무 중기청장과 김세호 철도청장이 협약서에 서명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중소기업청과 철도청은 5월 24일 대전청사 중소기업청 회의실에서 중소기업의 철도분야 기술개발을 공동 지원하기로 하는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서 중기청은 철도분야 개발과제에 대해 개발비의 75% 이내에서 업체당 2억원까지의 지원하고 구조개선자금 및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등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으며, 철도청은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을 5년 동안 수익계약에 의해 구매를 보장주고 철도기술연

구소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기술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에 지원되는 철도분야 과제는 전차선로에 활용되고 있는 스프링식 자동장력조정장치, 전차선로 해빙시스템, 고속철도 전차선로금구류 등 3개 과제, 7개 품목으로 현재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외화절약 뿐만 아니라 국내 기술자립 기반 구축으로 해외의존도를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중소기업으로부터의 구매액은 123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철도관련 부품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개발대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구매를 확대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은 2002년 국방부를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한전, 가스공사와도 협약을 체결하여 관련 분야의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판로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 기술지원국
기술개발과
(042-481-4444)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 실효성 제고

- 지원대상 확대 등 개편방안 마련 -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 자금”의 지원대상을 늘리고 지원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주요 개편내용은 자금 지원대상을 개발된 지 3년 이내의 기술로 제한했던 규정을 폐지하고, 기존의 정부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뿐만 아니라 기술지도사업 등을 통해 지도받은 기술을 포함하여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시제품 출시 ‘1년 이내’ 기술로 제한했던 것을 시장개척 등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해 ‘3년 이내’로 완화, 중소기업의 사업 안정화 단계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초기의 영세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출등급 기준을 일반 정책자금의 신용대출시 적용되는 재무등급 기준인 ‘F3-이상’에서 ‘F4 이상’으로 한 단계 완화했으며,

업체당 지원한도도 기존 ‘5억원’에서 ‘연간 5억원’으로 확대하여 이미 지원받은 업체도 추가적인 자금소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울초 도입된 기술평가 보증을 통해 지원하는 보증서부 대출제도의 절차를 개선해 해당기업이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신청만으로 중진공의 별도 심사 없이 곧바로 직접 대출이 가능토록 했다.

이번 지원방안 개편으로 사업화를 신규로 추진하는 영세기업 뿐만 아니라 사업화 이후 안정화 단계

까지의 추가적인 자금소요가 있는 기업들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이 사업화 자금의 부족으로 사장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올해 이 자금의 지원규모는 750억원이며, 대출금리 4.9%, 대출기간 5년(거치기간 2년 포함)으로 신용대출로 지원되고 있어 여타 정책자금보다 지원조건이 유리한 자금이다.

▶ 기술지원국
기술정책과
(042-481-4449)

창투사 관리감독에 외부 전문가 투입

- 회계사 등 전문가 10명 위촉 -

창업투자회사의 경영현황과 불법행위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은 불법행위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현장검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27일 대주회계법인 고정만 공인회계사 등 10명을 창투사 관리감독 전문위원으로 위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이 같은 관리감독 강화 방침은 최근 복잡다기화되고 있는 금융기법을 활용한 창투사의 불법행위가 나타남에 따라 관련 전문가 확충 및 전담 인력화를 통해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창투사 관리감독 전문위원은 공인회계사 등 자격

소지자 또는 금감원 등 유관기관이나 창업투자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전문 경력자로 구성됐다.

이번에 위촉된 전문위원들은 중기청이 창투사의 건전한 경영 유도를 위해 협회 등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창투사회계보고서 분석반”에 참여하여 자금흐름 파악 및 투자동향 등을 분석하여 이상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며, 문제가 발생한 창투사에 대한 현장검사와 매년 정기적인 창투사 검사를 실시하는 역할과 함께, 기금의 투자심의 자료에 대한 사전검토와 기타 회계처리 업무에 필요한 자문 등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중기청은 앞으로 창투사의 회계처리, 투자관리,

평가관리 등 분야별로 관리감독을 전문화해 나가며, 필요시 전문 인력을 확대하여 문제발생 창투사에 대해 즉각 대응체계를 갖추는 등 지속적으로 창투사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창업벤처국**
벤처진흥과
(042-481-4488)

2006년부터 경영·기술지도사 자격시험 어려워진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수행하는 경영·기술지도사 자격시험 과목이 대폭 확대된다.

중소기업청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21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영·기술지도사 자질 강화를 위해 지도사 1차시험 과목에 기업진단론과 조사방법론을 추가했으며, 2차시험 과목에는 분야별로 2과목씩을 추가했다.

또한 단체수의계약과 관련, 지정대상에 공사용역 뿐만 아니라 신산업 분야인 용역서비스도 포함시켰고, 하도급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금액 3억원 이상 물품의 제조, 수리, 전기공사 및 50억원 이상 일반 건설공사의 하도급 계약에서 원사업자가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에 통보토록 했다.

이밖에 단체수의계약 차등 물량 배정규정을 악용해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매기관이 차등 물량 배정조건을 조합에 문서로 통보토록 하고, 특정 조합 회원사의 물품을 지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보완했다.

▶ 중소기업정책국
지식서비스기업과
(02-509-7061)

지방 중기청 보유 시험연구장비 무료 개방

- 중기, 연간 30억원 연구개발비 절감 -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연구장비 부족 해소를 위해 전국 지방 중소기업청이 보유하고 있는 5천여 대의 모든 장비를 완전 무료 개방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오는 22일부터 수수료 없이 기술개발 용도로 지방 중기청 시험연구장비를 이용하거나 시험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이는 신제품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연구장비 부족 또는 고액의 시험비용부담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지방 중기청 장비를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의욕을 고취하고 개발비용을 절감해 주기 위한 것으로, 이번 연구장비의 완전 무료 개방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연구

개발비용이 연간 30억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말 중기청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에 필요한 장비의 50%미만 보유 중소기업(전혀 미보유 25.3%)이 6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방 중기청 연구장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이 2002년 3,026개사에서 지난해에는 3,804개사로 늘어나는 등 매년 이용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중기청은 앞으로 지방 중기청이 실질적인 지방 중소기업의 “R&D 지원센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유장비의 “100% 무료 이용개방(휴일, 야간 포함)제도”를 지속 운영하고, 지방 중기청을 중심으로 대학·연구기관간

“지역장비공동활용 네트워크”를 더욱 활성화하여 대학·연구기관 장비의 중소기업 이용개방을 촉진해 나가며, 각 지역별 장비수요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산업 특성에 맞추어 연 70억원 규모의 장비를 확충해 갈 계획이다.

▶ 기술지원국
시험평가과
(042-481-4452)

중소제조업 경기 2분기 소폭 상승 전망

3월중 중소기업 경기 는 전월에 이어 상승세가 지속되었으며, 2분기에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 됐다.

중소기업청의 “중소제조업 경기국면 분석과 전망”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경기흐름을 나타내는 “중소제조업 경기국면지수”는 3월 들어 전월(103.4)보다 0.8% 증가한 104.2를 기록했다. 이는 구성지표인 생산(2.7%), 출하(3.2%), 가동율(0.1%), 노동투입량(2.0%) 모두가 전월에 비해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동·생산·재고·자금사정·채산성 등 중소기업의 5대 경영환경을 지수화한 “중소제조업 경영환경지수”는 3월

의 경우 전달에 비해 2.1% 감소한 99.3을 기록했다. 이는 고용(0.4%), 생산성(0.2%) 및 채산성(0.2%) 지수는 소폭 증가한데 반해 재고순환(Δ 0.5%) 및 자금사정(Δ 4.9%) 지수가 더 큰 폭으로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

1분기에 상승세를 보인 중소기업 경기는 2분기에는 전분기에 비해 소폭 상승(0.5%)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월별 경기국면지수는 4월 104.5(0.3%), 5월 103.9(Δ 0.6%), 6월 103.0(Δ 0.8%)으로 5월 이후에는 소폭 감소해 조정국면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 중소기업정책국
정책평가과
(02-503-7931)